

News

“두자릿수 이자 얼마만” 은행 예·적금 고금리 경쟁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9월말 기준 5대 은행 예적금은 전월비 31조원 이상 증가… 예적금 금리 고공행진 중이기 때문… 신협중앙회는 현대카드와 5일 사상 처음 최고 10% 적금금리 제공상품 선보여… 광주은행, 최고 연 13.2% 금리 제공하는 '행운적금' 선보여… 신한카드, 우체국과 손잡고 지난 4월 내놓은 '우체국 신한우정적금'은 기준금리의 연이은 상승으로 9.95%까지 올라

'인뱅>시중은행' 자산 리스크 증가세 역전…중·저신용 '딜레마'

데일리안

올해 6월 말기준 카카오, 케이, 토스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 위험가중자산 총 26조 6,798억원… 카카오뱅크가 1조 1,621억원으로 동기간대비 2.3% 증가 5대 시중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은 874조 3,408억원으로 11.3% 증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기준 은행대비 대폭 늘리고 있기 때문… 자체 신용평가모형 개발에 힘쓰는 종

집값 떨어지고 금리 오르니 50년 주담대도 첫달 판매 30건

머니S

올 8월부터 처음으로 판매된 50년 초장기 주담대 보금자리론의 경우 한 달 동안 19건이 취급… 가구당 약 1억 7,200만원 공급된 셈 동기간 50년 초장기 주담대 적격대출은 11건으로 가구당 평균 2억 7,900만원 공급… 보금자리론 공급실적은 올해 8월 기준 3,743건으로 3분의 1 가까이 떨어져…

점포 줄고 디지털 대세인데…4대은행 IT인력은 8.2% 불과

아시아경제

4대 시중은행의 전체 임직원 대비 IT 인력 비중은 평균 8.2%에 불과… IT 인력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의 경우에도 여전히 10%에 못 미쳐…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경우 오프라인 지점이 없다보니 상대적으로 IT 인력 비중이 높은 편이나 작년말대비 8월말 기준 34.4% 떨어져…

한때 '완판' 보험사 자본성증권, 지금은 대형사도 계획 연기

머니투데이

한화생명, 지난달 초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던 7억 5,000만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 투자심리 위축이 원인 금리 변동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더 신용등급이 높고 안정적인 우량 투자처 선호하는 경향… 금리 지속 상승시 자본증권 발행 부담 확대 가능성

삼성생명·신한라이프 '판매자회사' 키운다… 제판분리 채비

뉴데일리

삼성생명, 기존 판매자회사 조직 확대를 시작으로 제판분리를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서는 모양새… 지난 7월 중소형 GA 인수 성공했고, 내달 400억원 규모 자금 수혈 예정 한화생명, 피플라이프의 최종 인수를 놓고 세부 사항 조율 중… 신한라이프, 내년 1월 목표로 TM조직을 신한금융플러스에 단계적으로 넘기는 방안 검토 중

삼성·미래에셋 고객만? 내년부터 미국주식 낚거래 확대된다

머니투데이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주요 증권사는 내년 2월 이후 미국주식 주간거래 서비스 도입 추진 중 이달부터는 미래에셋증권도 현지 법인을 통해 블루오션과 계약을 맺고 연중무휴 서비스 개시… 내년 2월 7일 기준 삼성증권 독점계약 마친 후 계약 체결 준비

유안타증권, 美 공모주 청약대행 재개

디지털타임스

유안타증권, 지난 8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받은 투자안내문 상의 잘못된 표현과 내용 바로잡고 신규 미국 IPO 공모주 청약 대행 건부터 재개할 예정 다음달 30일까지 100달러 이상 참여 고객 전원에 네이버페이 제공 등 이벤트 실시 예정… 청약 가능 종목은 상장 예정 공모주 중 제휴 증개회사 통해 물량 배정 가능 주식에 한정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